

출 장 보 고 서

러시아 목재합법성 인증 서류 조사 및 발급 절차 조사

1. 출장 목적

- 불법벌채가 환경파괴의 주범임을 인식하고 일부국가에서는 불법으로 생산된 목재 또는 그러한 목재를 이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교역제한을 위한 관련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한국도 불법벌채 교역제한 제도를 도입하여,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임.
 - 제도 도입에 따른 국내 목재 수입업체의 어려움을 줄이고자 러시아 목재의 합법성을 인정해 줄 수 있는 서류 등을 찾아 확인하고 있음.
- 러시아는 불법적으로 서류 위조가 발생되고 있어 이러한 서류를 확인하고 합법성 인증에 필요한 다른 추가 서류가 더 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음.
- 본 출장의 목적은 러시아 목재합법성 인증서류 확인 및 추가 인증서류를 조사하는 것임.

2. 출장 기간 및 출장자

- 출장 기간: 2018년 7월 23일(월) ~ 7월 27일(금) [4박 5일]
- 출장자: 산림정책연구센터 이상민 선임연구위원, 은종호 위촉연구원
- 출장지: 러시아(하바롭스크)

3. 일정표 (방문기관 및 면담자)

| 일정 | | 활동 | 주요 조사내용 |
|---------|-----------------|---|-------------------------------------|
| 7/23(월) | - | 한국 인천 출발 (13:00 / SU 5451) 러시아 하바롭스크 도착 (16:45) | - |
| 7/24(화) | 오전 (10:00am) | 러시아 산림청(하바롭스크) 담당자 및 산림관련 당국자들과 회의(1차 회의) | 목재합법성 인증서류 여부 확인 및 추가 인증 서류 조사 |
| | 오후 (14:00pm) | 산림 양묘장 방문 (Nekrasovka village) | 관계자 면담 |
| | 오후 (16:00pm) | 러시아 산림청(하바롭스크) 담당자 및 산림관련 당국자들과 회의(2차 회의) | 목재합법성 인증서류 여부 확인 및 추가 인증 서류 조사 |
| 7/25(수) | 오전 (8:00am) | 벌채회사 방문 Sukpai village, (Ros DV company log- ging site) | 벌채 단계 합법성 인증서류 조사 |
| | 오후 (15:00pm) | Sukpai village 지역 벌채지 방문 | 벌채 단계 합법성 인증서류 조사 및 불법 벌채 관련조사 |
| 7/26(목) | 오전 (8:30am) | 제재소 현지조사 (Rhimbunan Hijau) | 목재 가공단계 합법성 인증서류 및 인증서류 발급 절차 조사 |
| | 오후 (16:00pm) | 러시아 산림청(하바롭스크) 담당자 및 산림관련 당국자들과 회의(3차 회의) | 관계자 면담 |
| 7/27(금) | - | 한국 인천 도착 (12:00) | - |

4. 출장결과

1) 개요

- 러시아의 국토면적은 세계 최대로 남북으로는 약 2,500km~4,000km에 걸쳐있으며, 동서로는 약 9,000km에 걸쳐있음. 우수한 과학 기술력과 풍부한 천연자원 등으로 성장잠재력이 큰 나라임.
 - 러시아는 46개 주, 22개 공화국, 9개 지방, 4개 자치구역, 유대인 자치구역 1개, 연방도시 3개(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세바스토폴)로 구성되어 있음.
- 러시아 산림은 세계 산림 면적의 22%를 차지하고 있으며, 러시아 국토(8,149,310 km²)의 약 50%를 차지함. 모든 산지는 연방정부가 소유하고 있으며, 기능별로는 원시림, 기타 천연 갱신림, 조림지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러시아는 산림법, 원목법, 목재생산 및 운송에 관한 연방법에 의해 산림을 관리하고 있음. 주정부의 시행 사항을 관리 감독하는 기관으로 연방 산림부가 있으며, 담당부서로는 산림자원과, 산림산업과, 국가통합전산시스템 데이터분석·목재유통과가 있음.
- 러시아 산림이 훼손되는 중요한 원인은 산불과 개별임. 최근 중국의 산업화와 도시화 등으로 국경지대에서 불법 벌채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예산지원 부족 등으로 불법 벌채 행위를 막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러시아 자연자원부에 따르면, 불법 벌채량은 전체 목재수확량의 10%에 이른다고 함.
- 러시아의 불법 벌채량 증가 및 실태 파악과 세계적으로 합법 벌채의 인식이 대두되면서 러시아는 풍부한 산림자원을 효율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도입함.
-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한국도 합법벌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불법벌채 교역제한 제도를 입하였으며, 2018년 10월 1일부터 제도가 시행될 예정임.
 - 한국으로 수입되는 목재 또는 목제품의 합법벌채 판단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함.

수입되는 목재 또는 목재제품의 합법벌채 판단 세부기준 고시(안)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에 따라 수입 신고 되는 목재 또는 목재제품에 대하여 같은 법 제19조의3 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지정한 검사기관에서 서류검사 시 필요한 세부 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고시에서 “국가별 목재합법성 판단 표준가이드 템플릿”이란 한국 산림청이 원산국별로 목재합법성에 관한 정보 조사를 위해 원산국 정부에 요청하는 양식을 말한다.

제3조(대상상품의 분류체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의2에 따른 원목 또는 목재제품의 세계 공용 상품분류체계(Harmonized System Code)는 다음과 같다. 1. 원목(HS4403) 2. 제재목(HS4407) 3. 방부목재(HS4407) 4. 난연목재(HS4407) 5. 집성재(HS4407) 6. 합판(HS4412) 7. 목재펠릿(HS4401-31)

제4조(서류의 세부기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3제2항에 따라 검사기관이 서류검사를 하는 경우 합법벌채 된 목재 또는 목재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의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원산국의 법령에 따라 발급된 벌채허가서

2. 합법벌채 된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인증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통용 되는 것
가. FSC(Forest Stewardship Council)에 의해 발급된 산림경영인증 (Forest Management Certification), 임산물제품인증(Chain of Custody, Controlled Wood Certification)을 포함한다) 서류

나. PEFC(Programme for Endorsement of Forest Certification)에 의해 발급된 산림경영인증(Forest Management Certification) 서류 또는 임산물제품인증(Chain of Custody Certification) 서류

다. 국가별로 PEFC와 상호 인정하여 등록된 것으로서 별표에 기재된 인증제도에 따라 발급된 인증서류

라. 지속가능한 바이오매스의 이용을 위한 국제 인증체계(ISO 17065 체계에 따른 제3자 인증을 포함한다)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서 목재가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우리나라와 원산국 양자 협의에 따라 상호 인정하는 것

가. 우리나라에서 운영하는 한국산림인증제도(Korea Forest Certification Council)

와 상호 인정하는 수출국의 자체 산림인증제도에 따라 발급된 인증서류

4. 그 밖에 합법벌채 되었음을 증명하는 것

- 가. 유럽연합(European Union)과의 산림법집행, 거버넌스 및 거래에 관한 자발적 동반자협약(Forest Law Enforcement, Governance and Trade-Voluntary Partnership Agreement, FLEGT-VPA)에 근거하여 수출국이 구축한 관리체계에 따라 발급하는 인증서류
- 나. 수출국의 법령에 따라 해당 목재 또는 목재제품이 합법벌채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수출허가서
- 다. 수출국의 정부 또는 동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기관으로부터 해당 목재 또는 목재제품이 합법벌채 되었음을 확인하는 도장(서명)이 날인된 운송허가 또는 포장명세서 등의 확인서류
- 라. 불법적으로 벌채된 목재의 교역제한을 위한 법령 및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수출국의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수출업자가 작성하여 서명한 서류
- 마. 우리나라와 수출국 간 양자 협의에 따라 목재의 지속가능성과 합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다만, 한국 산림청에서 요구하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국가별 목재합법성 판단 표준가이드 템플릿에 해당서류의 발급기관 및 서식이 표기되어 있어야 함.

제5조(서류제출의 요건) 수입업자는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준수한 것이어야 한다. 1. 시행령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에 원본(복사본을 포함한다)을 제출하여야 한다. 2. 한국어 또는 영어 이외의 수출국의 자국어로 표기된 경우에는 한국어 또는 영어로 된 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 기한) 산림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8-00호, 2018.0.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러시아 목재 생산업체 방문 결과(하바롭스크 주 Sukpai village 소재)

- Ros DV company는 정부로부터 50년간 27만ha를 임대하여 매년 18만m³(1.5~2천 ha)를 벌채하고 있음. 벌채 수종은 70%가 전나무, 20%가 자작나무, 10%가 기타임.
 - 벌채 후 제재목, 바닥재, 가구용재 등 18종을 생산하여 주로 내수용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중국, 일본, 한국에 수출했으나, 가공시설 교체 중이어서 현재는 중국으로만 수출하고 있음.
- 산림복원을 포함한 10년간의 산림관리계획이 있으며 매년 실행계획을 주정부에 보고하고 승인받은 후에 실행함.
 - 벌채 후 정부가 선정한 수종을 조림(3,000본/ha)하거나 자연발아가 될 수 있도록 토양 표면처리를 하고, 풀베기를 실행함.
- 매년 임대료와 벌채에 따른 수수료를 지불함. 합법적인 목재 생산, 유통, 수출 등을 위하여 관련된 자료를 벌채 전, 벌채 후, 계약 시 전산 시스템에 입력해야 함.
- Ros DV company에서 목재합법성 인증서류와 발급 절차에 대한 자세한 의견을 들었으며, 모든 인증서류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발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함.

사진 1. Ros DV company 방문



3) 러시아 목재 가공·수출업체 방문 결과(하바롭스크 주 Hor village 소재)

- Rhimbunan Hijau company는 하바롭스크 주에 위치한 목재 가공 회사 중 큰 규모에 속하며 대부분의 가공이 자동화로 이루어지고 있음.
 - 외국인(말레이시아) 투자업체로 입찰 없이 산림임대가 가능하고 임대료의 50%를 감면받음.
- 참나무, 물푸레나무를 취급하며 별채부터 가공·수출까지 함.
 - 원목, 합판, 칩 등 다양하게 생산하며(합판은 연간 15천m³) 폐자재를 활용해 발전시설(7MW)과 보일러를 가동하는 순환체계를 갖춘.
- 계약 시 양 업체가 시스템에 입력하면 인보이스, 매매계약서, 수량내역서가 첨부되며 이 안에는 서명일, 계약수량, 업체명, 납세자등록번호, 납품수량 등이 입력되어 있음.
 - 계약신고서 번호는 시스템에서 부여하는 고유번호이며 세관신고서 작성 시 계약신고서 번호를 기입하게 되어 있음.

사진 2. Rhimbunan Hijau company 방문



4) 목재합법성 인증방안 협의 결과

- 러시아의 모든 목재업체(벌채·가공·수출)는 전산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며, 관련 정보를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음¹⁾
 - 벌채 전·후 신고, 계약내역 등을 각 업체가 단계별로 입력하며, 입력된 정보는 서로 연계되거나 출력은 불가하여 관련된 종이서류를 보관함
- 벌채업체는 입찰²⁾을 통해 정부와 산림임대계약을 맺으며, 매년 실행계획을 보고하고, 매년 임대료와 벌채수수료를 납입함.
- 벌채허가는 벌채업체의 산림신고서에 지방정부가 직인(사각형)을 찍거나, 수기로 승인번호를 쓰거나, 확인서를 발급하는 등 다양함.
 - 허가서는 3부 작성하여 벌채업체, 지방정부, 레인저³⁾가 보관함.
- 수출 시 모든 목재류는 식물검역확인을 받아야 하며 검역 시 벌채허가서를 제출해야 함(펠릿처럼 열처리 제품은 제외).
- 세관신고 시 계약신고번호(전산시스템에서 부여한 고유번호)를 입력해야 하며 세관은 전산시스템에서 목재합법성을 확인함.

사진 3 러시아 연방 산림청, 하바롭스크 주정부 산림청 회의



1) 러시아연방 산림법(2006.12.4.) 제50조 6항, 2014년에 개정됨.
2) 외국 투자기업은 입찰 없이 임대계약 체결, 임대료 감면 혜택이 있음
3) 지방정부 산하의 지역 산림감시조직

5) 시사점

- 러시아는 연방정부와 주정부로 나뉘어 산림을 관리하고 있음. 하바롭스크 주정부는 산림보호국에서 산림을 관리하고 있으며, 주안에 지역별로 약 40개의 관리소에서 산림 레인저들이 산림을 보호 및 관리하고 있음.
- 러시아는 목재의 벌채, 가공, 수출 등을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회사에서는 한국 수입업체가 필요한 목재합법성을 인정해 줄 수 있는 다양한 서류의 발급이 가능함.
 - 승인받은 벌채 신고서를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고 있어, 이에 대한 내용을 수출업체에게 복사본을 요청하여 발급 받을 수 있음.
 - 벌채된 원목을 트럭에 신고 보낼 때는 운송장에 계약서 번호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며, 수출시 계약신고서에는 수출회사와 수입회사간의 계약번호가 동일하게 기재되어야 함.
 - 세관신고서 작성 시 계약신고서 번호, 최종 수출자 관련사항 등을 입력하게 되어있어 세관신고서만 있으면 러시아산 목재에 대한 합법성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음.
- 전산시스템에서 출력 가능한 서류는 인보이스, 명세서, 계약신고서, 추가 계약서 등이 있음.
- 연구진은 러시아와 세 번의 회의 및 전산시스템 시현 등을 통해 러시아산 목재가 현재의 제도 안에서 한국 세관에 무난히 통과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암암리에 불법적으로 만들어지는 위조서류 등 다양한 위협에 대해서는 추후 제도를 보완하여 개선함으로써 국제적인 수준에서 불법벌채목의 국내유통을 막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할 것임. 이러한 위조서류 발견 시 데이터로 정리하여 불법 목재가 유통되는 것을 방지해야 함.